

본당 소식

2024년 6월 생활말씀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마르 4,26-27)”

♣ 공동체 함께 성경 읽기

- 매일 7~8페이지씩 성경을 읽읍시다!(주님 성탄 대축일까지)

♣ 한국 주교단 로마 사도좌 방문(Ad limina)

- 일시: 2024년 09월 16일~21일
- 사도좌 방문 후, 22일 주일에 대구대교구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과 장신호 요한 보스코 보좌 주교님께서 밀라노 한인성당을 방문하십니다.
- 각 구역별로 견진성사 대상자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 7,8월 여름 휴가기간 동안 복사와 구역별 독서는 없습니다.

♣ 구역 모임 및 회의

- 청년성서 모임: 다음 주일(30일) 미사 후, 사제관

♣ 봉사자

• 계단,화장실: 서인복 리노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80,20€ • 교무금 00,00€

전례 성가

입당 : 63 (온세상에 전파하리)

봉헌 : 216 (십자가에 제한되신)

성체 : 174 (사랑의 신비), 171 (오 거룩한 생명의 샘)

파견 : 200 (열렬하신 주의 사랑)

전례 봉사

이번 주일(30일)	다음 주일(7일)
1독서: 서인복 리노	1독서:
2독서: 류정연 리따	2독서:
복 사: 강윤이 스텔라, 엄채윤 엘리사벳	복 사: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2024년 6월 30일 (녹)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미사 전례

화답송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 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데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1독서 (지혜서 1,13-15; 2,23-24)

13 하느님께서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14 하느님께서서는 만물을 존재하라고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피조물이 다 이롭고 그 안에 파멸의 독이 없으며 저승의 지배가 지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15 정의는 죽지 않는다.
2,23 정녕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24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8,7,9.13-15)

형제 여러분, 7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온갖 열성에서,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도 뛰어나므로,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9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13 그렇다고 다른 이들은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은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14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 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 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15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5,21-43)

그때에 21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22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뵈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23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서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24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와 함께 나하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 댔다. 25 그 가운데에 열두 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26 그 여자는 쓸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27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28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29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30 예수님께서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31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 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32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33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34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35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36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37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38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39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40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41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쿴!”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42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43 예수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당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 교황의 몸과 마음을 보살펴 주시어, 주님 백성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일치와 토대가 되어 온 교회를 하느님 나라로 이끄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2.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남북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내려 주시어, 지금 여기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통하여 한반도가 화해와 용서의 장이 되게 하소서.
3.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유하신 주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굶어살피시고 위로하시어,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이웃과 희로애락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저희가 복음을 실천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 모신 성체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